

탑골공원

근대적 공원이자 3·1 운동의 발상지

1896년(고종 33) ~



1 개요

탑골공원은 한국 정부에서 조성한 최초의 근대적 공원이며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장소이다.

2 근대도시공원의 시작

공원은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탄생한 근대적인 공간이다. 원래 18세기까지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공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왕이나 귀족, 성직자 등 특권층의 개인 정원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자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 주택난, 빈부 격차, 전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도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지와 확보와 개선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이후 공원이 계획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도시공원은 '근대의 발명품'이었다.

서구에서 공원이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서 조성되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다른 의미로 수용되었다. 애초에 동아시아에서는 서구만큼 도시문제가 대두되었던 것도 아니고 녹지나 휴식처가 부족하지도 않았다. 다만 공원이 근대의 발명품이었던 만큼 '근대문명시설'로서 받아들여졌

다. 예컨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서구화정책을 시행한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이 이루어진지 5년밖에 지나지 않은 1873년 1월에 이미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로 공원 설치를 제도화하기 시작하여, 도쿄의 우에노공원을 최초로 조성하였다.

한국 최초의 공원은 인천 자유공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공원은 1876년(고종 13)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고종 20년(1883) 인천이 개항된 이후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 조성되었고, 만국공원(萬國公園)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인천에서는 1883년(고종 20) 일본거류지를 시작으로, 이듬해 4월에는 청국거류지, 10월에는 각국거류지가 개설되었고, 1889년(고종 26)에 각국 거류지회가 만들어졌는데, 만국공원도 이즈음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또 일본인들은 일본거류지에 신사를 건립하고 신사 주변을 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천에서는 동공원(東公園)을 조성하였고(만국공원을 서공원으로 부르며 대칭적으로 명명함), 1897년 서울 남산에 '화성대공원(和城臺公園: 현재의 남산공원)', 부산의 용두산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3 탐골공원의 조성

1896년에 접어들면서 한국인들도 공원 조성에 나서게 되었다. 가장 먼저 공원 조성에 앞장 선 것은 독립협회였다.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2일 창립하면서 '협회규칙' 제2조에 '독립문과 함께 독립공원을 건설하는 사무를 관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관련사료](#) 또한 7월 4일자 『독립신문』에 공원 조성 and 독립문 건설을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을 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독립신문』은 독립공원이 "조선이 독립한 표"가 될 것이고, 또한 공원지가 국민들이 운동하고 쉴 수 있어 '인민의 위생'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은 개화정부가 마땅히 조성에 힘써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사료](#)

독립문은 1896년 11월 21일에 기공하여 이듬해 11월 20일에 준공되었는데, 이때 소요된 공사비에 공원 조성 용도의 각종 비용이 기록되어 있어 독립문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독립공원 조성 계획이나 공원 구조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1898년 12월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된 이후 공원의 흔적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탐골공원이 최초였다. 원래 탐골공원이 자리한 곳은 고려 시대 흥복사(興福寺)가 창건된 곳이었다.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세조에 의해서 흥복사가 중건되면서 원각사(圓覺社)로 개칭되었다. [관련사료](#) 하지만 이후 억불숭유(抑佛崇儒)의 분위기 속에서 도성안의 유일한 사찰인 원각사는 조정 관료들과 유생들에 의해서 배척받게 되었고, 결국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의 명으로 원각사에서 승려들을 축출하였다. [관련사료](#) 대신 이곳에 궁중 음악 및 무용을 맡아보던 관청인 장악원이 옮겨왔는데, 이후에는 연산군의 기생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관련사료](#) 중종대에 한성부 관청이 잠시 원각사 자리로 옮겨오기도 했지만, 1514년(연산군 20) 원각사의 재목을 다른 관청 건물을 고쳐짓는 데 사용할 것을 중종이 허락함으로써 원각사 건물

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관련사료](#) 이후 원각사 터에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과 대원각사비만 절터라는 흔적을 알려주었다.

탑골공원의 구성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는 기록 역시 남아있지 않다. 비숍 여사(Isabella Bird Bishop, 1832 ~ 1904)가 1894년부터 1897년까지 네 차례 조선을 방문하고 저술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Korean and her Neighbors)>에서 “백담(the Marble Pagoda)은 동리민가의 뒤뜰에 감추어져 있어 그것은 너무나도 주택에 둘러싸여 있어서 담장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1890년대 중반까지 아직 이곳에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97년에 당시 개항장의 해관 업무를 담당하던 총세무사 브라운(Brown, J. Mcleavy, 伯卓安)이 1897년 탑골공원 조성을 건의하였고 설계까지 맡았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1934년에 편찬된 『경성부사(京城府史)』에 “고종 시대 광무 초년(1897년) 영국인 고문 총세무사 브라운이 이 땅을 보관하고 소공원으로 만들었다. 파고다공원(탑골공원)은 실로 경성 최초의 공원이다.”라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브라운은 1893년(고종 30) 조선으로 건너와 총세무사, 한국정부의 재정고문을 맡는 등 한국의 재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경운궁의 석조전 건설, 시가지 측량 등에 관여하였는데, 탑골공원의 조성 역시 브라운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99년 4~5월에 발행된 신문기사에는 아직 원각사 석탑 인근 지역의 가옥 철거 및 보상금 지급 문제로 주민과 정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음을 보도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이로 볼 때 1899년 6월에서야 불법가옥을 철거하면서 공원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공원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당초에는 공원부지에 간단한 울타리를 두르고 식재를 약간 한 정도에서 출발하였다가, 점차 팔각정과 연못 등이 건립되었고, 1906년경에는 군악대 건물이 들어섰다. 최초의 공원부지 면적은 알 수 없으나, 식민지기에는 면적 변화가 거의 없어 약 11,000m²를 유지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공원 관리권은 조선총독부로 넘어갔으며, 군악대 건물은 도서관 건물로 사용되었다. 식민지기 들어 공원 내에 벤치, 화단, 회유도로, 전등, 수도 등의 시설이 설치되고 식재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점차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병합 직후 탑골공원은 일요일에만 일반시민들의 출입이 허용되다가 1913년 7월부터 평일에도 개방되면서 비로소 경성부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다.

4 3·1 운동의 시발지

탑골공원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것은 이곳이 바로 3·1 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이라는 점이다. 3·1 운동은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과 ‘무단통치’라고 불릴 정도로 폭압적이었던 일제의 지배방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의식, 그리고 1차 세계 대전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로 인하여 촉발되었다. 우선 상하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이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대규모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서 국내의 유력인사 및 종교세력, 일본 유학생을 접촉하여 독립운동을 모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미 천도교 및 기독교계와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운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

었는데, 신한청년당과 접촉하면서 만세시위운동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 이에 크게 고무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천도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우선 대한제국의 관료 출신 명사들을 접촉하여 이들을 민족대표를 추대하고자 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거절하였다. 다음으로 기독교 세력과 접촉하여 2월 24일 회합에서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하고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시위운동의 조직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날짜를 3월 1일로 택한 것은 고종의 국장일이 3월 3일이므로 서울에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국장일에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불경이므로 3월 4일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장일에 폭동이 일어날 경우 독립운동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므로 국장일 이전에 거사하기로 하였다. 3월 2일은 일요일이어서 기독교측에서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3월 1일로 결정되었다.

이후 불교계에서 한응운, 백용성(白龍城)이 참여하였다. 이때 학생단체들에서도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천도교·기독교 연합에서 시위 운동 날짜를 확정하고 학생단에게 통고하여 시위운동의 전위에 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학교 학생대표들은 이날 시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3월 1일 정오까지 탑골공원에 집합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각 종교단체들에서는 민족대표를 선정하여 2월 28일 최종 회합을 가졌다. 이때 박희도가 독립선언 발표 장소를 탑골공원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다. 탑골공원에 다수의 학생들과 군중들이 모이면 자칫 폭력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를 구실로 일제 군경이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제안에 대해 참석자 일동은 모두 찬성하였고, 손병희가 다른 장소로 중국음식점인 태화관(泰和館)을 제안하여 이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일 2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삼창한 후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여 체포되었다. 그 시각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은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태화관에서 따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이 통고되자, 학생대표가 태화관으로 가서 민족대표들을 비판하며 한 사람이라도 탑골공원에 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민족대표들은 전원이 함께 체포되기를 결의했으므로 학생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냈다. 이에 학생들은 2시 30분에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부터 촉발된 만세시위는 곧 서울 전역에 파급되었고 5월경까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역사상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관련사료](#)